2021 년 06 월 08 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Strategist 한지영** 02)3787-5241 hedge0301@kiwoom.com
RA 김세헌 02)3787-5150 saehun.kim@kiwoom.com

미 증시, 인플레 경계심리에도 바이오젠 효과 등으로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7 일(월) 미국 증시는 10 일(목) 소비자물가 발표 경계심리, 옐런 재무장관의 금리 상승 용인 발언 부담에도, 개별 호재에서 기인한 바이오젠(+38.3%) 폭등 효과에 힘입어 헬스케어 포함 성장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연출하면서 혼조세 마감(다우 -0.4%, S&P500 -0.1%, 나스닥 +0.5%). 업종별로는 부동산(+0.9%), 커뮤니케이션(+0.5%), 헬스케어(+0.3%) 등이 강세, 소재(-1.2%), 산업재(-0.7%), 금융(-0.6%) 등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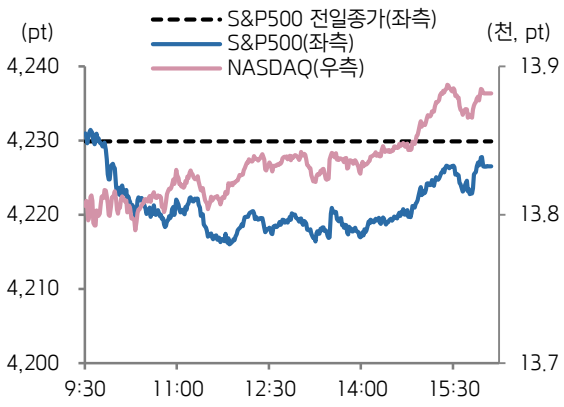
옐런 재무장관은 G7 재무장관 회의 이후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10 년간 약 4 조달러)으로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미국 경제와 연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과거 10 년과 물가와 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해당 발언의 배경.

중국의 5 월 수출은 27.9%(YoY)로 전월(32.3%) 및 예상치(32.1%)를 하회. 5 월 수입은 51.1%로 전월(43.1%)에 비해 증가했으나, 원자재 가격 급등에서 주로 기인한 가운데 예상치(51.5%)도 소폭 하회. 다만, 높은 수준 수출입 금액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7 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 증시에 제한적인 영향만 가함.

미국 증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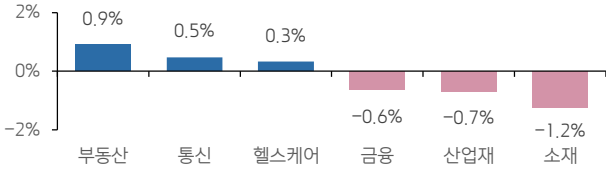
현재 미국 증시는 지수 레벨 부담이 상존한 가운데, 뚜렷한 신규 모멘텀이 출현하지 않은 채 매크로발 경계심리만 짙어지고 있는 모습. 이는 시장의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한 상황 속에서 특정 테마주들로 수급을 치우치게 만들고 있는 상황. 바이오젠이 (효능에 대한 불확실성과 논란이 있음에도) 미 FDA 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 사용 승인 소식에 장중 주가가 60% 넘는 폭등한 것이나, AMC(+14.8%), 게임스톱(+12.7%) 등 Meme 주식들의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 전반적인 시장 모멘텀 부재에서 단기 수익을 추구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 5 월 소비자물가, 6 월 FOMC 등 대형이벤트 종료까지는 개별 테마성 재료에 따라 업종간, 종목간 차별화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 존재.

S&P500 일중 차트(6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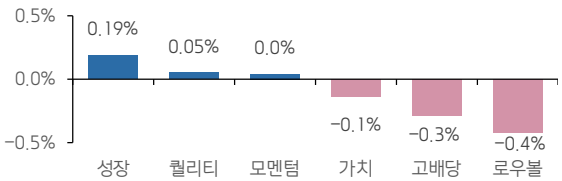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6월 7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6월 7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49%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5%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22%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0.6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경기 민감주들의 차익실현 물량 지속 출회 가능성 2. 원전 테마 관련 중소형주들의 주가 급변동 가능성 3. 알츠하이머 관련주들의 바이오젠 효과에서 기인한 주가 변화 여부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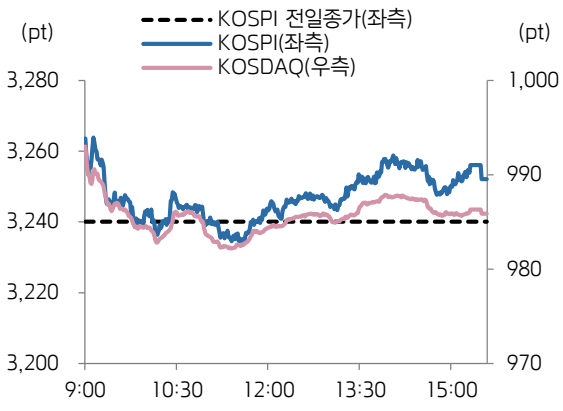
7 일(월) 코스피는 미국 고용 안도감에 힘입어 자동차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 출발하면서 장 중 3,260pt 선을 상회. 이후 금주 미국 소비자물가 관망심리, 중국의 5 월 수출입 부진 등으로 하락 전환하기도 했으나, 장 중반 이후 금융투자 등 기관 순매수 확대 속 원전 테마 업종들의 동반 급등에 힘입어 재차 반등에 나서면서 사상최고치(3,252.12pt)를 경신한 채로 마감 (코스피 +0.34%, 코스닥 -0.2%]

업종별로는 기계(+8.0%), 전기가스(+5.5%), 의료정밀(+2.8%) 등이 강세, 철강금속(-2.1%), 섬유의복(-0.4%), 의약품(-0.2%) 등이 약세. 수급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1,841 억원 순매도, 기관과 개인은 각각 1,184 억원, 656 억원 순매수를 기록.

한국 증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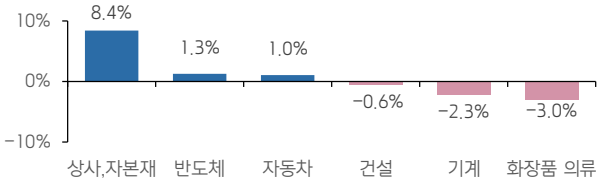
한국 증시는 미국 소비자물가 발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단기 레벨 부담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 확대로 하방 압력을 받으며 출발할 것으로 예상. 한국의 주력 수출국가인 중국의 5 월 수출입 증가율이 양호했다는 점이나, 한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대형주들이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점은 한국 증시 전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금주 중 대형 매크로 이벤트를 소화해내야하는 부담감이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지수 방향성이 정체될 것으로 보임.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특정 테마주(Ex: 원전 등)들의 주가 변동성에도 유의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6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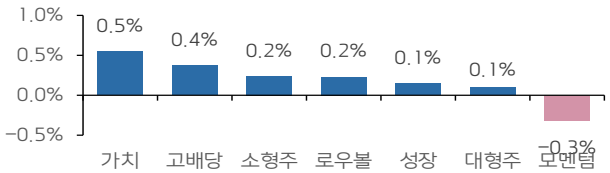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6월 7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6월 7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